

탈냉전과 브라질 군부의 이념 변화 :

국가안보론에서 사회안보론으로*

이영조(경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글의 순서

- I. 머리말
- II. 냉전체제론과 군부의 대내외 정책
- III. 민주화 이후의 외부상황과 군부의 선택
- IV. 대외적 역할 확대의 전개
- V. 탈냉전 체제론과 사회안보론의 등장
- VI. 맺는말 : 사회안보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I. 머리말

흔히 탈냉전이라는 용어로 축약되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군에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이래 몇 차례의 국지적 분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제적 평화가 유지되어 온 라틴아메리카에서 군의 존재는 언제나 잉여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군 자체의 주된 관심사도 언제나 국내안보였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 이 논문을 위한 연구는 1994년도 교육부 지역연구과제 연구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하고 군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국제공산주의의 우회적인 침투 위협이었다. 실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상의 위협인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국제공산주의의 성체들이 남아 있는 한 군은 그 내부지향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소련 블록의 붕괴는 군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같은 정당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문민화 그리고 문민화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남미를 휩쓴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부의 도전(contestation)의 기반이 된 특권(prerogatives), 특히 전략 부문의 국영 기업을 개발·관리하는 군의 특권을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¹⁾ 한 마디로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는 앞친데 덮친 격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는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켜 온 것이 브라질 군부였기 때문이다.²⁾ 실제로 군의 장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브라질에서 가장 활발하다는 것이 위기의 심각성을 시사한다.³⁾

또 하나의 이유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전통적인 알력과 반목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설과 특히 1991년 양국 사이에 체결된 핵협정은 양국이 모두 과거의 의심과 반목을 청산하고 협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뚜렷한 증거이다. 이후 브라질이 과연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재고하려는 움직임이

1) 스테판(Stepan, 1988)에 의하면 도전과 특권은 민-군관계를 규정하는 두 가지 핵심변수이다.

2) 에이나우디(Einaudi, 1969), 스테판(Stepan, 1973) 등의 연구에 힘입어 페루의 군부도 정교한 이념을 개발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으나 마스터슨의 최근 연구(Masterson, 1991)는 이를 의심한다.

3) 'First hints of the new 'emerging conflicts' in the region,'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February 25, 1993, p.1.

뚜렷하다.⁴⁾

실제로 1985년 문민화 당시에 496,000명에 달했던 브라질의 군대는 1993년에는 296,000명으로 줄어들었다(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1995 : 42).

이같은 위기에 대해 브라질의 군부는 당연히 상황변화에 걸맞는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스스로의 존립이유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⁵⁾

민주화과정을 스스로 시작했고 주도했던 브라질의 군부는 이웃한 아르헨티나의 군부와는 달리 상당한 영향력과 자율성을 견지하고 있다. (O'Donnell, 1988 ; Hagopian, 1990 ; Karl, 1990). 물론 1990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군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Tollefson, 1995) 그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Zaverucha, 1993 : 299). 당연히 제기되는 흥미로운 질문은 브라질 군부가 어떻게 그러한 영향력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고 있는가이다.

과거에 브라질 군부의 대내적 역할을 정당화했던 '안보발전론'(Doutrina de Segurança e Desenvolvimento)은 탈냉전하에서는 더 이

4)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알폰신 정부의 개혁으로 8만 수준이었던 군대의 규모가 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여기에서도 군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국가안보법이 군의 역할을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방어로 국한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알폰신은 가상 적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군의 존재이유를 사실상 부정했다. 알폰신하의 탈군사화개혁에 대해서는 이영조 (1993) 참조. 마약단속이나 테러리즘분쇄를 위해 군대를 이용한다는 계획을 낸 것 외에는 메넬하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메넬하에서의 민-군관계에 대해서는 Zagorski (1994) 참조.

5) 이 논문을 위한 연구가 시작된 후 발표된 한 논문(Hunter, 1994 : 32)은 군부의 힘과 자율성에 비추어 이러한 역할 모색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고 쓰고 있으나 힘과 자율성을 지닌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군부와 같이 힘과 자율성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는 수동적으로 부과되는 역할과 임무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 유용하지 않다. 하지만 어차피 뚜렷한 외부의 가상 적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외부의 적을 찾아내기란, 선형적으로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브라질 군부의 과제는 전통적인 대내안보적 정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나 교의(doctrine)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탈냉전의 상황에서 브라질의 군부가 스스로의 존재이유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안보발전론 대신에 '사회안보론'이라는 새로운 교의를 개발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각종 자료를 통해 브라질 군부가 스스로 규정해 나가고 역할과 임무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안보론의 존재와 내용을 규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시에 사회안보론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이 오늘날 브라질의 민주주의와 정치판도에 어떤 함축을 지니는지 살핀다.

II. 안보발전론과 군부의 대내적 정향

대내안보는 전통적으로 브라질 군부의 주된 관심사였다. 브라질군대의 역할은 대체로 대내적 질서유지에 국한되었다. 19세기 말 동북부의 민란을 진압한 데 이어 1930년대에는 주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국가건설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공산계릴라를 제거하기 위한 내란방지활동을 전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전선에 원정군으로 참가한 것은 19세기 파라과이와의 전쟁과 더불어 브라질 군의 역사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역사적으로 내란이 없을 때 군대는 쿠데타의 위협이나 실행을 통해 민선정부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889년 제정을 전복한 이래로 브라질의 군부는 브라질 정치에 대해 궁극적인 조정력(poder moderador)을 행사해 왔다.⁶⁾

6) 제정하에서 정치인들 사이에 정치적 교착상태가 계속될 때 이를 조정하는 권위는 황제의 고유한 대권이었다. 제정이 붕괴한 후 브라질의 군부가 이 조

1930년 바르가스(Getúlio Vargas)의 집권과 1937년 '신국가'(Estado Nôvo)의 건설에 군부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1945년에서 1964년 사이에도 군부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정치권력의 향배를 결정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1964년에는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고 이후 21년 간 브라질을 통치했다.

군부는 또한 국가기반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세기 초부터 군대는 내부 오지를 탐사하고 도로와 통신체제를 설비하고 전략부문 즉 광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국영기업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서 군부는 스스로를 국가의 발전과 진보를 책임진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

1950년대 이래 고등군사학교(Escola Superior de Guerra : ESG)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된 '안보발전론'은 군부의 이같은 대내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정당화한 것이었다. '안보발전론' 혹은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 Doctrine)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으로 해서 미·소의 직접적인 무력 사용이 오히려 제한받는 냉전상태하에서 세계 공산주의는 우회침투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따라서 제3세계 국가의 경우 안보의 최대의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 공산분자의 선동에 의한 내부의 폭동이나 무장봉기이고 빈곤과 불평등은 이러한 선동이 먹혀 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안보는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러한 논리는 군부가 자임(自任)하는 역할의 확대를 가져왔고 스스로가 민간 정부보다 더 유효하게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 아래 정치에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태판(Stepan, 1971 ; 1973)은 안보발전론이 군부이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군부가 국내문제에 개입해

정 권력을 승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은 역사에 비추어 전통으로부터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의 강화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안보와 발전'은 공화정 수립 시기 이래 브라질 군부의 실증주의적 관심사였으며 브라질의 국기에도 삽입된 모토인 '질서와 진보'(Ordem e Progresso)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Markoff and Baretta, 1985).

III. 민주화 이후의 외부상황과 군부의 선택

감압(distensão)에서 개방(abertura) 그리고 이행(transição)으로 이어진 민주화의 과정을 주창하고 주도해 온 브라질의 군부는 민선 정부하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누렸지만 점차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 첫 문민 정부였던 사르네이 정권하에서 군부는 광범한 제도적 특권을 누렸으며 문민정부의 정책결정에 빈번히 개입하였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의회가 군부에 도전했지만 사르네이 대통령은 군부의 요구에 빈번하게 굴복했다. 이러한 현상은 크루자두계획의 실패로 그의 인기가 급락하면서 특히 두드러졌다.

국내문제에 대한 개입을 강력히 옹호하는 한편 군은 대외적 방어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추구했다. 적어도 사르네이 정권하에서는 국가안보론의 본질적 요소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군부지도자들은 특히 부의 분배를 요구하는 민중운동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군부의 개입은 정당하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1990년에 집권한 콜로르는 이같은 군부의 정치적 지위에 도전했다. 3천 5백만의 지지표를 등에 업은 콜로르는 군총사령관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행사할 결심이었다. 그는 먼저 군에 부당하게 큰 정치적 영향력을 허
7) 몇 가지 예를 들면, 군사화된 주경찰에 대한 군의 통제, 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 군예산 확대 등이었다.

용하는 자리들을 군부의 통제로부터 떼어 내려고 시도했다. 특히 그는 국가안보회의와 국가정보기관에서 군을 배제하려고 했다. 콜로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지만 군에게 잘 규정된 임무를 부여하지는 못했다. 그는 미래의 전투는 하이테크화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 정보화, 하이테크화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군의 핵심적 사업들은 콜로르 정부하에서 예산이 삭감당했다.⁸⁾ 1992년 12월 독지협의로 탄핵된 콜로르 대신에 이타마르 프랑코(Ítamar Franco)가 대통령에 취임할 무렵 군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고 군의 사기는 저하될 대로 저하되어 있었다. 군의 정치적 독립을 축소하려는 콜로르의 시도에 순응한 대가로 군은 비전투적 조직으로서 활력을 지닐 수 있는 자원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낮은 월급에 군지도부는 문민정치인들이 군을 가치 있는 전문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굳혀 갔다. 월급문제는 군을 상하로 분열시켰다. 1985년 이래 정부에 충성을 보여 온 군지도부와, 지도부가 정부에 맞서 군을 방어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군 일반 사이에 긴장을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군지도자들은 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이 있었다.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군에게 언론의 협조적인 보도는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하지만 군부의 지도자들은 언론이 군부 내에 존재하는 직업주의적 경향을 충분히 인정하지도 강조하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외방위를 해군의 유일한 관심사로 만들려고 애쓴 한 고위 제독은 언론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우리가 정치에 개입한다고 비난하면서도(군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주의적 발전은 다루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정치에 대한 질문도 계속 묻고 있다. 해군은 변화를 추

8) 공식적인 예산상으로는 상당한 삭감이 있었다. 하지만 하이테크 사업의 예산은 다른 부처를 통해 집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삭감은 공식예산에서 얼핏 보는 것보다는 많았다. “Foras armadas tem mais recursos,” *Gazeta Mercantil*, 1992년 10월 23일.

구하지만 우리는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Hunter, 1994 : 35).

브라질 군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 냉전의 퇴조와 더불어 미국의 관심은 반정부게릴라전과 마약취체를 벌이는 군부에 주로 쏠리고 있다. 이미 70년대 초에 공산게릴라를 소탕한 브라질에 대한 관심과 원조가 5,60년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치부하더라도 미국이 핵과 같은 전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군사기술을 브라질이 개발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 (Conca, 1992). 브라질 군의 전통적인 방어임무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과 군을 마약취체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군을 외부로 재정향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

확실히 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단적인 증거가 콜로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적 위기 동안 군부가 취한 중립적인 태도이다. 92년 6월에서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심지어는 대규모의 군중시위가 발발한 상황에서조차,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이들은 군이 아니라 의회가 콜로르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⁹⁾ 과거의 무수한 정치개입과 쿠데타에 비추어, 군부가 이같은 중대한 정치적 위기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군의 목표와 자기인식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문민지도자와 군지도자들의 잦은 회합 또한 군의 변화를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군지도자들이 중요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거의 예가 없었다. 브라질 군은 언제나 자신들이 ‘국가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독자적인,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을 뿐 군이 자임한 임무나 활동에 대해 민간의 이해나 지지를 추구하는 일은 없었다. 군이 민간인을 참여

9) “Nao somos da geração AI-5,” dizem militares,” *Gazeta Mercantil*, September 22, 1992.

시킴을 시작했다는 것은 군이 어떠한 역할을 채택하든 이를 유지하는 데는 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군이 새로운 임무를 모색함에 있어서 경계선은 비교적 선명했다. 브라질의 군은 문민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영광된 임무”를 추구하고 있었다. 군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재래식 방어임무의 확대는 정치적, 경제적 장에 봉착해 있었다. 현재 수준의 병력규모로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든 상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브라질 민간정치인들이 군대 규모를 급격히 축소(downsizing)할 만한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적 제약 때문에 군대 규모의 현저한 증가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브라질 군부가 추구할 수 있는 임무는 무엇인가가 군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이론적으로 브라질 군부 앞에 놓인 주요 선택지는 (1) 전통적인 국경수비, (2) 현대의 하이테크 전쟁에의 대비, (3) 국제평화유지, (4) 대민사업, (5) 마약취체를 포함한 대내치안과 경찰기능이다(Hunter, 1994 : 36). 이 가운데 어떤 옵션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느냐는 군의 이익과 문민정부 및 정치세력의 지지에 달려 있다.

IV. 대외적 역할확대의 한계

브라질이 직면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외부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두 영역은 아마존 지역의 국경수비(Zirker and Henberg, 1994)와 하이테크 무기체계의 개발과 구입에 기초한 현대전에의 대비이다.

아마존 지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갈등이 해소되면서 브라질 군부의 관심이 쏠리는 곳으로 국경수비가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아마존 국경지대는 마약 및 기타 밀수, 외국의 게릴라운동, 외국인의 불법채광 등 무수한 구체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군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우림을 더 이상의 파괴로부터 구하려는 국제환경운동 또한 브라질의 주권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¹⁰⁾ 군은 1985년에 '북방수역' (Calha Norte) 사업을 통해 군초소, 비행장, 주둔지, 도로 등을 건설하는 한편 이주정책을 펴으로써 국경수비를 강화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브라질 남부로부터 군대를 이동시켰고 92년에는 파라 주에 사령부를 둔 새로운 군사령부를 창설했다.¹¹⁾

군부 내에는 아마존의 가치에 대한 광범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주권의식, 민족주의 그리고 이 지역의 지정학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 등이 어우러져서 자원의 보고인 아마존의 수호를 영웅적인 사업으로 비치게 하고 있다. 군사 정권(1964~85)은 '할양하지 않기 위해 통합(integrar para nao entregar)' 한다는 기치 아래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엄청난 환경파괴를 가져왔고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브라질의 주권을 국제환경운동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노출시켰다. 이것은 다시 아마존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려는 군의 강화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정파에 관계 없이 민간정치인들은 원칙적으로 아마존에 대한 경비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우파는 외국의 이익으로부터 자원의 보고를 수호한다는 민족주의적인 함의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진보세력은 도시 지역으로부터 군을 이동시킬 가능성을 보고 아마존에 대한 수비강화를 지지

10) "War is Proposed to Save Amazonia,"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June 14, 1990, p.5.

11) "Color baixa decreto que amplia presença militar nas regiões de fronteira," *Gazeta Mercantil*, August 11, 1992. 북방사령부는 파라, 마라냐옹, 아마파 주와 토칸친스 주의 일부를 포함하는 광범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아마존지역에서의 대게릴라작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Pinheiro (1994) 참조.

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모든 후보가 아마존 지역에서의 군 역할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다(Hunter, 1994 : 38).

그러나 대외안보와 관련된 많은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마존 수비 강화에 대한 민간정치인들의 지지는 수사에 그치고 실제로 이를 위한 지출 결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재원의 부족으로 군의 '북방수역' 사업은 콜로르 정부하에서 사실상 중단되었다. 오로지 군부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 사업에 포함된 대민사업들은 모두 취소된 상태이다.

브라질군이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두번째의 대외임무는 하이테크 무기의 개발과 구입에 기초한 근대전예의 대비이다. 민정이양 후 육군은 새로운 전자전 시대에 적응할 계획을 발표했고 해군은 핵추진잠수함계획을 위한 자원을 얻어내기 위해 로비를 시작했다. 공군은 새로운 미사일과 통신위성 그리고 제트전투기 개발을 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계획은 군사 정권하에서 시작된 군 근대화계획의 연장이었다. 브라질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튼튼하고 값싼 군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으며 1980년대 초에는 정교하고 기술집약적인 무기체계를 생산할 정도로 발달했다(Franko-Jones, 1992). 해군은 핵연료 잠수함의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공군의 우주미사일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탄두미사일의 발사에 사용될 수 있는 위성발진기를 생산했다 (Tollefson, 1992 : 45).

비록 전쟁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군부 내에서는 군 근대화 사업의 확대에 대해 광범한 합의가 존재한다. 첫째, 모든 군대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군대도 궁극적인 목적은 외침에 대한 방어라는 것이다. 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장교들도 군의 방어 능력을 제고하는데 대해서는 모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민주화로 통치의 임무로부터 벗어난 군대는 장비, 훈련, 조직 면에서 전문적인 전쟁수행기관으

로서의 능력을 제고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군부는 하이테크 무기체계 생산능력이 국제적으로 브라질의 위상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서구선진국 특히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기술차별(technological apartheid)'에 저항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군부 내의 광범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군의 현대화는 재정적 고려와 미국의 적대감 때문에 심각한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브라질의 방위산업 육성은 전략적 고려와 경제적인 고려가 결합된 결과였다. 국내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한 방위산업의 경제적 활력은 수출능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브라질의 무기수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감소해 왔다 (Conca, 1992 : 154). 미처 자리잡지 못한 프로그램(핵, 우주항공프로그램)에 아직도 많은 투입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의 상실은 브라질의 방위산업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야기했다.

브라질 의회가 군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최근 시도도 군의 현대화를 저해하고 있다. 1992년까지만 해도 가장 민감한 기술개발은 의회의 승인 없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의원들은 국가예산 내에 '비자금'이 존재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민간의 필요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며 예산에도 민주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에서 정치인들은 예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엄청난 경제적 자원 외에 미국의 적대감과 압력 또한 군부의 현대화프로그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브라질의 무기가 리비아나 이라크와 같은 국제적 '깡패국가'(pariah states)로 팔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무기판매가 확인된 1990년 미국은 브라질에 대해 슈퍼컴퓨터와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을 막고 프랑스와 기타 국가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¹²⁾

12)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에 대해서는 Conca (1992 : 155) 참조 또 'Who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의 일부로서 미국과 기타 회원국들은 브라질이 군사기술을 획득하지 못하게 해오고 있다.¹³⁾

브라질 정부는 다른 영역에 줄 영향도 걱정하고 있다. 재무부의 많은 관료들은 브라질이 현재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 결과 브라질의 기술자들이 이라크에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된 지 두 달 만에 콜로르 정부는 아르헨티나와의 사이에 오래도록 현안으로 남아 있던 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달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합동으로 핵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감시와 사찰을 허용함으로써 핵개발 의혹을 불식한 것이다.¹⁴⁾

아마존 방위와 무기체계의 근대화는 군부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과제이지만 국내의로부터의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제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화의 공고화 측면에서 보면 이들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는 국방의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 치중하려는 군부 내의 직업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들 영역으로의 역할 확대가 군의 정치불개입을 보장하지는 못할지라도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을 크게 줄일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수준에서는 이런 기대는 어렵고 군은 자원과 규모의 추가감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Armed Iraq? Answers the West Didn't Want to Hear," *New York Times*, July 18, 1993, p.E-5.

13) "Bid to Free Arms Trade from Curbs,"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January 28, 1993, p. 38.

14) "Brasil e Argentina fecham acordo de salvaguarda nuclear com a AIEA," *Gazeta Mercantil*, November 25, 1992.

V. 대내적 역할확대와 사회안보론의 등장

브라질의 경우 외부의 안보위협과 마찬가지로 대내안보에 대한 위협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게릴라 집단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좌파정당인 노동자당 (Partido dos Trabalhadores : PT)은 선거정치의 원칙과 자본주의를 굳게 받아들이고 있다.

브라질이 외침과 내란의 위협에서 벗어나 있다면 도대체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군대를 잡자기 없앨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민정치인들은 군대, 특히 육군에게 두 가지 유형의 대내적 역할을 맡기고 있다. 첫째는 경찰기능이고 두번째는 개발 및 대민활동(civic action) 프로그램이다.

경찰임무는 도시범죄와의 전쟁, 마약단속, 인디오보호구역 침입자 축출 등을 포함한다. 군의 이러한 새 임무에 대한 반응은 복합적이다. 치안 불안의 증가로 군대를 치안유지에 사용하는 데 문민 정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군대도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군의 대권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장교들은 경찰기능이 군의 상시적인 핵심기능이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¹⁵⁾

하나의 반대는 범죄와의 전쟁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군에게 보다 광범위한 정책작성권한은 부여하지 않으면서 군을 사회적 갈등의 와중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반대는 경찰업무가 반드시 독특하게 군사적인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군의 전문적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군을 또 다른 경찰기능인 마약단속에 투입하는 것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15) 브라질의 헌법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군에 부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군은 이 헌법조항을 비상시 사회불안정을 제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로 해석해 왔다. 1987~88년 간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군은 이 조항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

로 주창하는 바이다. 군대가 새로운 임무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마약단속기능에 대한 군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마약단속의 과정에서 미국에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군의 낮은 월급과 사기에 비추어 마약단속에 군이 개입할 경우 너무나 강력한 부정의 유혹에 노출됨으로써 군의 부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가 범죄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살인과 총격전이 이어지는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자 브라질 정부는 군을 리우의 파벨라 지역에 투입키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프랑코 정부는 주의 무장경찰을 군의 통합지휘하에 둔다는 중요한 양보를 군에 하게 된다.¹⁶⁾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군을 아마존 지역의 '환경별동대'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민간정치인들은 환경보호야말로 군을 정치 외의 영역에 붙잡아 두는 좋은 수단이라고 간주하고 있다.¹⁷⁾

사르네이 정부 이래 아마존 지역의 금채굴자들이 인디오를 땅에서 몰아내면서 외부로부터 전파된 질병에 시달리는 인디오들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군부대가 배치되고 있다. 아마존 보호에 대해서는 군도 상당히 수용적이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자원을 관찰, 보호한다는 보다 큰 임무와 관련지어 군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민활동과 관련하여 군에 부여되고 있는 임무는 도로, 수로, 교량 및 기타 사회 하부구조의 건설 그리고 궁벽한 지역에서의 긴급구호 및 의료 제공이다. 브라질의 군은 20세기 초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초에는 안보와 발전은 동일하다는 믿음에

16) "Franco Sends Troops to Rio,"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November 10, 1994, p. 506.

17) 물론 개발의 미명하에 군사 정권이 환경보호나 인디오문제에 무관심했던 사실을 들어 군에게 환경별동대의 역할을 맡기는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작다 (Zirker, 1994).

서 이러한 대민업무가 강화되었다. 쿠바혁명에 놀란 미국 역시 농민들의 공산주의 대안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군이 적극적인 개발역할을 맡기를 원했다 (Agüero, 1993 : 5).

콜로르를 계승한 프랑코 대통령은 브라질 군의 이같은 전통을 부활시키려고 노력했다. 프랑코 대통령은 "빈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군이 중요한 군수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가난한 지역에 식량을 배급하는 일 외에 프랑코는 군이 야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설비, 공공주택 등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빈곤과의 전쟁에 군을 동원하려는 시도는 민간정치인은 물론이고 군으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의회도 호의적이었다. 심지어 노동자당 의원들조차도 지지를 보였다.¹⁸⁾

이처럼 대내적 프로그램에 대한 군의 개입 확대에 대한 민간의 지지가 군의 대외적 역할 확대에 대한 민간의 지지를 능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간정치인들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비해 가난이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외부위협은 개연성이 희박한 가상의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군의 대내적 활용을 지지하는 데는 재정적인 고려도 개재되어 있다. 대외적인 옵션은 군을 대민사업에 배치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제한된 자원과 사회적 효용에 대한 고려가 비용이 적게 드는 대내적 역할 확대에 대한 지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군이 보다 큰 개발 및 대민 업무를 맡는 데 대한 군부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군지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난의 문제를 다룰 필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장군들이 망설이고 있었다. 첫번째 이유는 군의 비전문화에 대한 우려였다. 군

18) "A Role for the Military,"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February 4, 1993, p. 52.

이 과연 특별히 군사적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투적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전문 집단으로서의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감축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두번째 이유는 대내적인 임무수행이 군의 일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대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이 필연적으로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도로서의 군(military as institution)'의 집합적 정체성과 내부적 단결을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실제로 군정기간 동안에 이러한 갈등에 휩싸여 군의 일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경험했던 브라질의 군부로서는 이러한 분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¹⁹⁾

세번째 이유는 군부가 인식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심이었다. 미국이 군의 전통적인 방위임무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브라질을 위시한 라틴 아메리카의 군대에게 비전투적인 역할을 부과하려는 미국의 기도에 말려들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²⁰⁾

군 일각에서의 이러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은 대민활동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조직의 생존이라는 지상명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활동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새로이 열린 이익정치에서 군이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대민업무가 군을 '민중의 친구'로 비치게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유용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예산삭감 등으로 땅에

19) 브라질의 군정이 궁극적으로 문민화로 이어진 자유화정책을 펴기 시작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로서의 군(military as government)'이 경험한 제도적 일체성(institutional integrity)의 부식이었다(Stapan, 1988 : chaps. 2-4).

20) "For as Armadas reagem aos EUA : Não serão só polícia," Relatório Reservado, December 23, 1991-January 5, 1992, No. 1295, p.1. Cited in Hunter (1994 : 41).

떨어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Hunter, 1994 : 41).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군부가 처음부터 대내적 역할의 확대를 지향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내부적인 회의도 있고 해서 대내적 역할을 맡기를 주저했으나 일단 정부의 정책과 환경적인 제약 등에 비추어 그것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과정에서 문민 정부로 양보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안보론(Social Security Doctrine)은 군 내부의 회의론자들과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에게 군의 확대된 대내적 역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군의 대내적 역할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안보론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론을 대신하는 사회안보론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말이다. 전국적으로 가난한 시민들이 수퍼마켓을 약탈하는 등 범죄와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1월 브라질의 중앙정보부에 해당하는 전략문제부(Secretaria de Assuntos Estratégicos : SAE)는 “브라질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국경분쟁이나 정치적 전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해 군대를 거리로 내보내야 할 정도의 사회적 전쟁에 의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SAE장관인 플로레스(César Flores) 해군제독은 “경찰의 능력을 증가하는 범죄성의 증가로 통제불능의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같은 상황은 실업,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치적 열패감으로 만들어진 ‘올화의 가마’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²¹⁾

이어 지루세나(Zenildo Zoroastro de Lucena) 육군장관이 행정기구의

21) “Para SAE, guerra social ameaça a segurança,” Folha de São Paulo, November 16, 1992, pp.1~5. Also “Brazilian Military Seek New Threat: After the ‘Internal Enemy’, Risk of ‘Social War’,”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December 10, 1992, p.7.

와해와 개헌을 둘러싼 정치위기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의 확산을 우려하는 지휘서신을 발표했다.²²⁾ 언론에 직접 공개한 이 문서에서 지루 세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이미 여러 해 계속된 경기침체가 사회적 불평등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산층의 프롤레타리아화와 극빈인구의 증가를 언급했다. 특히 대도시는 실업, 빈민 지역의 과밀 인구, 범죄,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성의 복합적인 효과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²³⁾

이와 때를 맞추어 국가안보론의 산실이자 전파소였던 ESG의 교장인 포르투나(Hernani Goulart Fortuna) 해군제독은 ESG에서 보다 많은 학문적 자유를 기대한다면서 국가안보론의 바이블이었던 『기본교범』(Manual Básico)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²⁴⁾

재검토의 방향은 선명했다. 과거의 '내부의 적'은 사라진 데다 지역통합의 진전으로 인접국과의 가능한 갈등에 기초한 과거의 '가상전쟁시나리오(war hypotheses)'도 대부분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에서 군부가 부비고 기댔 새로운 위협은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 4월 1일 3군의 장관들은 1964년의 '민주혁명'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공동코뮤니케를 통해 군의 최우선과제는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사회안보론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된다.²⁵⁾

나아가 이러한 사회안보론은 남미 군부 전체의 이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993년 6월 말에 열린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군회담에 참석

22)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December 3, 1992, p. 3.

23) "Brazilian Military Seek New Threat: After the 'Internal Enemy', Risk of 'Social War',"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December 10, 1992, p. 7.

24) "Brazilian Military Seek New Threat: After the 'Internal Enemy', Risk of 'Social War',"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December 10, 1992, p. 6.

25) "Taking a Look at Old Enemies,"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April 29, 1993, p. 182.

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리고 칠레(참관인) 군부 대표들은 한결같이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의 군부역할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다. 오비에도(Lino Oviedo) 파라과이 대표는 '빈곤과의 전투'에 군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르헨티나의 라울 라카나(Raúl Raca) 장군은 군부의 교과과정에 사회과학을 중요부분으로 끌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참석자가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 정체를 극복할 필요에 동의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국가안보의 사회적 기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²⁶⁾

'국가안보론'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으로 해서 미·소의 직접적인 무력 사용이 오히려 제한받는 냉전상태하에서 세계공산주의는 우회침투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따라서 제3세계 국가의 경우 안보의 최대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 공산분자의 선동에 의한 내부의 폭동이나 무장봉기이고 빈곤과 불평등은 이러한 선동이 먹혀 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안보는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사회안보론은 탈냉전 상황에 맞게 국가안보론에서 냉전논리를 탈색시켰다는 점을 제하고 나면 국가안보론과 매우 유사한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3년 10월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안보체인 미주안보회의(Inter-American Defence Board)가 펴낸 사회안보론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안보론과 마찬가지로 빈곤의 만연, 사회의 분극화, 기본적 자유의 결여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계급들 사이의 해결되지 않은 대립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공산주의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파

26)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July 8, 1993, pp.306~307.

시름' 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업 내지는 반실업 상태에 있는 엄청난 숫자의 젊은이들은 쉽게 정치적으로 동원될 것이라고 한 이 보고서는 이같은 위협의 성격에 비추어 "군대만으로는 안보를 증진시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²⁷⁾

VI. 맺는말 : 사회안보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냉전 종식 이후 브라질의 군부 특히 육군은 대외적 역할만 가지고는 현재의 군대규모나 예산 수준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군은 비전투적 역할보다는 대외적 역할의 확대를 원했지만 감축이 거의 필지의 사실로 보이는 상황에서 군은 민간 정부가 지지하는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비전투적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군부 내의 반대와 우려를 극복하고 군이 결코 전통적인 국가안보로부터 후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은 과거의 국가안보론에 대신하는 사회안보론이 대내적 역할의 바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국가안보론과 사회안보론의 비교

	국가안보론	사회안보론
위협	공산주의	파시즘
위협의 소재	사회 내부	사회 내부
위협의 원인	경제문제(실업, 빈곤, 불평등)	경제문제(실업, 빈곤, 불평등)
위협의 형태	공산전복	사회전쟁
군의 역할 정향	대내(경제발전, 치안)	대내(경제발전, 치안)

27)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October 28, 1993, p.493. 이 문서의 서명자는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우루과이의 군 대표들이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사회안보론'은 탈냉전의 상황에 비추어 국가안보론에서 냉전논리를 탈색하고 탈냉전의 논리를 채색한 것이다. 1960년대 초의 국가안보론이 경제발전이 곧 안보라는 논리와 군부가 민간 정부보다 경제발전의 과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 아래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마찬가지로 군의 역할확대를 요구하는 1990년대의 사회안보론은 군을 정치화시킴으로써 탈군사회를 퇴행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군이 문민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지만 만약 경제회생이 늦어져 파국적인 상황이 되면 개입의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일단 군이 복합적인 국내적 임무를 맡게 되면 문민통제의 약화는 거의 피할 수가 없다. 하나의 위협은 군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위협은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군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결정 과정 과정에서 군의 지렛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군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특히 프랑코 정부 말기에는 군에 대한 의존이 크게 증가했다. 각료 가운데 9명이 군인이고 예산재정장관에 대령이 임명되었다. 군이 연방경찰을 지휘하고 있으며, 텔레브라스, 도시나비 같은 국영회사의 운영책임도 군이 맡고 있다. 이같은 이념적 전환은 현실정치에서 군부의 개입주의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군부의 집단이기주의와 이를 밀고 나갈 새로운 세력연합을 정당화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 민선 정부가 펴고 있는 내핍정책은 특히 군예산의 감축을 가져오고 있다. 작전능력의 유지는 고사하고 인건비조차 삭감당하는 상황에서 군부는 어쩔 수 없이 정치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브라질 군부의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그리고 정부의 민영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과거 이념의 적이었던 노동자당(PT)과도 연합하고 있다. 이러한 '적과의 동침'은 사회안보론이라는 새로운 이념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참고문헌

이영조, 「아르헨티나의 민선정부와 군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 4집, 1993.

Conca, Ken, "Technology, the Military, and Democracy in Brazil,"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24(1), Spring, 1992.

Einaudi, Luigi, *The Peruvian Military : A Summary Political Analysis*, Santa Monica : RAND Corporation, 1969.

Franko-Jones, Patrice, *The Brazilian Defense Industry*, Boulder, Colorado : Westview, 1992.

Gazeta Mercantil, various issues.

Hagopian, Frances, "Democracy by Undemocratic Means? Elites, Political Pacts, and Regime Transition in Brazi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3(2), July, 1990.

Hunter, Wendy, "The Brazilian Military after the Cold War : In Search of a Mission,"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8(4), Winter, 1994.

Karl, Terry Lynn, "Dilemmas of Democratizatio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3(1), February, 1990.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various issues.

Markoff, John, and Silvio R. Duncan Baretta. "Professional Ideology and Military Activism in Brazil : Critique of a Thesis of Alfred Stepan," *Comparative Politics*, 17(2), January, 1985.

Masterson, Danile M., *Militarism and Politics : Peru from Sanchez to Sendero Luminoso*, New York : Greenwood, 1991.

O'Donnell, Guillermo A., "Challenges to Democratization in

Brazil," *World Policy Journal* 5, Spring, 1988.

Pinheiro, Alvaro de Souza, "A Vision of the Brazilian National Security Policy on the Amazon," *Low Intensity Conflict and Law Enforcement*, 3(3), Winter, 1994.

Stepan, Alfred, *The Military in Politics : Changing Patterns in Brazi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Stepan, Alfred, "The New Professionalism of Internal Warfare and Military Role Expansion," in Alfred Stepan(ed.), *Authoritarian Brazil : Origins, Policies, and Future*,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73.

Stepan, Alfred,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Tollefson, Scott D., "U.S. Security Relations with Brazil : Implications for Civil-Military Relations in Brazil," Paper prepared for the XII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Los Angeles, September 24, 1992.

Tollefson, Scott D., "Civil-Military Relations in Brazil : The Myth of Tutelary Democracy," paper presented at the 1995 meeting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Washington, DC, September 28-30, 1995. [http : //lanic.utexas.edu/project/lasa95/tellefso.htm](http://lanic.utexas.edu/project/lasa95/tellefso.htm).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93~1994*,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Zagorski, Paul W., "Civil-Military Relations and Argentine Democracy : The Armed Forces under the Menem Government," *Armed Forces and Society*, 20(3), Spring, 1994.

Zaverucha, Jorge, "The Degree of Military Political Autonomy

during Spanish, Argentine and Brazilian Transition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5(2), May, 1993.

Zirker, Daniel, and Marvin Henberg, "Amazonia : Democracy, Ecology, and Brazilian Military Prerogatives in the 1990s," *Armed Forces and Society*, 20(2), Winter, 1994.